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1937년 12월 후난성 창사로 옮겨왔다. 그리고 김구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과 가족 100여 명도 중국정부의 도움을 받으며 창사에 도착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창사에서 활동하는 동안 중국정부와 후난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중국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투쟁 정신을 기리고, 한-중 양국의 우의의 상징인 '남목청'을 2007년 6월 시급문화재로 지정하였다. 나아가 2009년에는 건물을 복원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와 항일투쟁을 전시하는 기념관으로 조성하였고, 2015년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에서는 전시물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전시를 지원하였다.

### 관람안내

주 소 지	중국 후난성 창사시 카이푸구 연승가 남목청6호 中国湖南省长沙市开福区连升街楠木厅6号
전 화	0731-85172956
운영시간	동계 : 09:00 - 17:30(12월 ~ 다음해 2월) 하계 : 09:00 - 18:00(3월~11월)

■ 이 안내서는 배우 송혜교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의 기획과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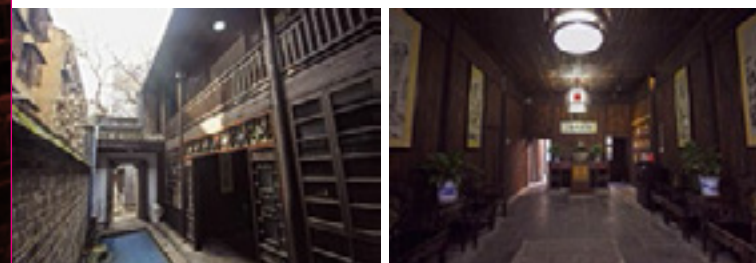
# 대한민국임시정부 창사 활동 구지

창사 시기의 대한민국임시정부

## 1. 대한민국임시정부 창사 활동 구지 (남목청6호)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있는 남목청 6호는 조선혁명당 본부로 사용되었다. 이곳에서는 1937년 8월 결성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소속 3당(한국국민당, 재건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의 통합과 관련한 회의가 개최된 역사적 장소이며, 이 회의 도중 김구가 총에 맞아 중상을 입은 '남목청사건(楠木廳事件)'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 2.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펼친 창사에서 다양한 활동



중국국민당 후난성 당부 창사라디오 방송국 구지

### 01 대한민국임시정부 창사에 도착

1937년 7월 일제가 중국 본토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을 단행하자, 중국정부는 전시 수도를 충칭으로 이전하였다. 일제의 탄압과 전화를 피해 대한민국임시정부도 후난성 창사로 이전하게 되었다. 창사는 홍콩을 통해 국제 사정을 접하기 쉽고 곡물 가격이 저렴하여,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펼치기에 매우 적당한 곳이었다.

### 02 한국말 방송과 한인의 우편함을 제공받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창사에 정착하자 1938년 초 창사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한인들이 국제정세와 중일전쟁의 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방송을 개설하였다. 또한 중국당국은 임시정부의 통신 편의를 위하여 특별히 창사 우체국에 대한 한국임시정부의 우편함을 설치하였다.



조소앙

### 03 조소앙의 라디오 연설(1938.1.3)

“중국 항일은 필승, 한국은 반드시 독립할 것”  
1938년 1월 3일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 선전위원회 주임 조소앙은 창사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본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라는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에서 중국의 항일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한국은 기필코 독립할 것이라는 곳곳한 신념을 피력하였다.



김구

### 04 김구 담화문 발표(1938.1.28)

“끝까지 싸우자”  
1938년 1월 28일 김구는 창사에서 항일투쟁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래 대부분의 한국인은 중국에 와서 항일전쟁의 대열에 가담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그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은 항일투쟁의 길밖에 없으니 끝까지 싸우자”라고 하여 최후까지의 항전 의지를 보여 주었다.



3.1운동 19주년 기념대회(1938. 3. 1)



청년 문화공연단 : 항일극, 공연 등 문화선전 활동을 진행



아리중학교 구지 : 아리중학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자녀들이 다수 재학 하였던 곳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교포들의 중요한 집회나 활동 장소로 사용 되었음(1938년 4월 15일 아리중학교 대례당 에서 도산 안창호 추도회 개최)

## 3. 3당 통합을 위한 회의와 남목청 사건

### 남목청 사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창사에 머물고 있던 1938년 5월 6일 조선혁명당 본부가 위치한 ‘남목청’에서 민족주의 진영 3당의(한국국민당, 재건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통합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 도중에 조선혁명당원 이운한(李雲漢)이 회의장에 난입하여 권총을 쏘아 김구가 중상을 입고, 현익철이 사망하는 이른바 ‘남목청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일로 민족주의 진영 3당의 통합회의는 무기 연기되었고, 3당 통합회의는 1939년 8월 치장에서 다시 개최되었다.

< 회의참석자 >



김구

현익철

유동열

지청천



김구가 피격 후 치료를 받았던 상아의원

## 4. 중국 지도자의 도움

### 저우언라이(1898~1976)

1938년 1월, 저우언라이 영도하에 있던 중국공산당의 기관지 <신화일보新華日報>는 창간 초기에 김구와 인터뷰를 “한국국민당 영수 김구의 담화”란 제목으로 전문 게재하였다. 중국공산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기관임과 김구의 투쟁정신을 지지하였음을 보여 준 것이다.

저우언라이는 1963년 ‘한중 역사관계에 관한 담화’에서 “두 나라 인민의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은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회고하였다.



저우언라이

장즈중

### 장즈중(1890~1969)

군인 겸 정치가로, 1935년 제5기 국민당 중앙집행위원, 1937년 후난성 주석을 지냈다.

장즈중은 김구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위해 관저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어 방송국 등을 개설하도록 도왔다. 1938년 남목청 사건 당시에는 부상당한 독립운동가들을 문병하고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장즈중 장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위해 편의를 봐주었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였다.